

9월19일(월)/딤후1:1~2

제목: 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서두에도 자기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혔고 수신자인 디모데를 사랑 하는 아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편강이 있기를 기원 하였다(1~2절).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한다(1절). 무슨 뜻인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생명’ 이 있다고 한다. 사도직을 수행하다가 몸쓸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 생명이 넘치고 있다고 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는데 그 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곧 바로 갈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저 없이 손을 놓는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갈등 없이 하던 일을 중단한다.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9월20일(화)/딤후1:3~14 (1)

제목: 조상을 회상해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에베소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디모데는 여러 이단들의 침입을 막아내야 할 힘든 임무를 지지고 있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디모데가 가진 훌륭한 가문 이야기를 꺼냈다. 디모데는 조상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3절)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다(4절). 바울이 왜 이 말을 꺼내는가? 만약에 디모데가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그 가문에 불명예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가문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집안의 신앙의 전통에 금이 간다’ .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서면 나의 후손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다’ . 이 정신은 때로는 우리를 힘있게 만든다. 나에게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없다면 내가 그러한 위대한 선조로 설날을 기대하고 애써야 한다. 종종 우리는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을 회상하던지 아니면 자기가 믿음의 선조로 남게 될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9월21일(수)/딤후1:3~14 (2)

제목: 지도자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디모데를 복음과 함께 고난당할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하였다(8~9절).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지녀 할 성품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용기이다(7절). 지도자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두 번째는 능력이다(7절). 지도자는 영혼을 부스러뜨리려고 덤비는 적 앞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사랑이다(7절). 지도자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절제이다.(7절). 남을 가르치는 자는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절제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다. 절제력은 자기 이성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절제력이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구하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진다.

9월22일(목)/딤후1:3~14 (3)

제목: 사람은 불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자기가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은 자라고 확신했다(11절). 이 사명을 수행 할 때 대접이나 환영보다 고난이 훨씬 많이 뒤 따라 올 것을 알았다(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아름다운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다(13~14절). 여기서 ‘아름다운 것’ 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음이 왜 아름다운 것인가?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생명’ 과 ‘썩지 않음’ 을 주기 때문이다(10절). 여기서 ‘썩지 않음’ 은 불멸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사람은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영혼들이 거하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생명이며 불멸이라고 한다. 성서는 이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받아드린 자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가서 거기서 생명을 얻고 불멸한다고 가르친다.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불멸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불멸하게 된다.

9월23일(금)/딤후1:15~18

제목: 의리를 지키면 그 가정이 잘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처한 개인적인 사정을 알려주었다. 바울은 자기가 아는 아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위해 법정에서 증인되기를 거절하였는데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유독 심했다고 알려주었다(15절).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자주 면회와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알려주었다(16~17절). 오네시보로는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쩌면 로마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그도 오를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의리를 끝까지 지켰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축복하였다(16절, 18절). 특히 그의 ‘집’을 축복하였다(16절). 여기서 ‘집’은 가정 혹은 가족을 가리킨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호의에 감사하여 그의 가족이 복 받기를 간구하였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 외로운 신앙의 동지를 격려하는 사람은 그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복 받는다. 울곧은 신앙의 친구를 후원하고 돕는 사람은 그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하나님의 공훈하심이 미치게 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